



미 증시,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20 일(수) 미국 증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으나 점도표상 기준금리 중간값 상향, 연내 추가 인상 및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에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 마감 (다우 -0.22%, S&P500 -0.94%, 나스닥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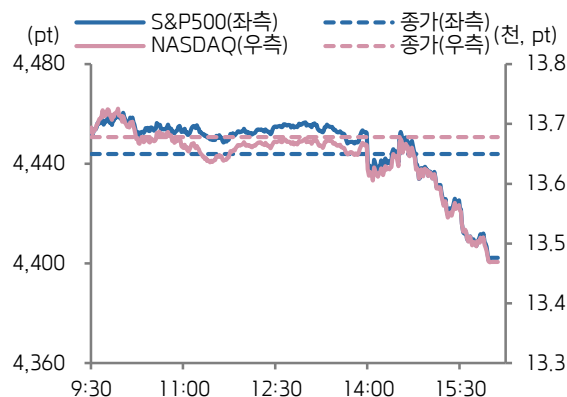
9 월 FOMC 에서 기준금리 5.25~5.50% 동결, 점도표 상 올해 기준금리 상단 5.6%로 유지했으며 내년말 금리 예상치는 기존 4.6%에서 5.1%로 상향. 내년 기준금리 네 번 인하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에서 두 번 인하로 선회. 올해 미국 성장을 예상치는 지난 6 월 1.0%에서 2.1% 상향, 내년 성장률은 1.1%에서 1.5%로 상향. 점도표에서 올해 추가 1 회 금리인상을 예상한 연준 위원들은 12 명, 나머지 7 명이 동결을 전망.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4.1%에서 3.8%, 내년 실업률은 4.5%에서 4.1%로 하향.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3.9%에서 3.7%로 하향조정했으나 헤드라인 PCE 상승률전망치는 3.2%에서 3.3%로 상향.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만 경제가 생각보다 강해 물가 재상승 위험을 염두에 두고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 것으로 해석.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하며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및 고금리 장기화 시사. 이어 "인플레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가능한 수준이며 연착륙은 우리의 주요한 목표임은 분명하다"고 강조. 유가 상승에 대해선 "소비자 심리와 기대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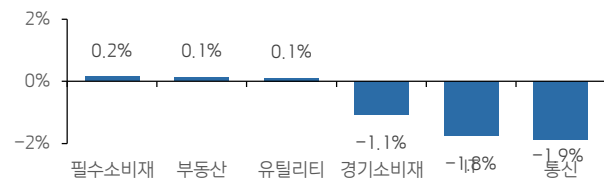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2%), 부동산(+0.1%), 유틸리티(+0.1%) 업종 강세, 통신(-1.9%), IT(-1.8%), 경기소비재(-1.1%) 업종 약세.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에 미 국채 10년물, 2년물 금리 급등하며 애플(-2%), 알파벳(-3.12%), 아마존(-1.7%) 메타(-1.77%) 등 빅테크 중심으로 약세. 엔비디아(-2.94%), 마이크론(-1.46%), AMD(-1.25%) 등 반도체 관련주 역시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4%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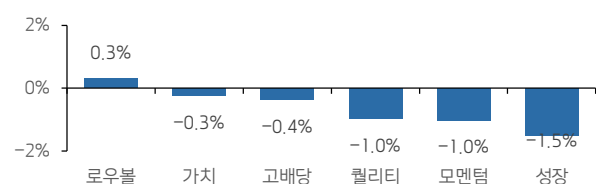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59.74	+0.02%	USD/KRW	1,330.13	+0.13%
코스피 200	338.75	-0.02%	달러 지수	105.33	+0.18%
코스닥	882.72	-0.13%	EUR/USD	1.07	+0.02%
코스닥 150	1,386.27	+0.7%	USD/CNH	7.31	+0%
S&P500	4,402.20	-0.94%	USD/JPY	148.23	-0.07%
NASDAQ	13,469.13	-1.53%	채권시장		
다우	34,440.88	-0.22%	국고채 3년	3.880	-0.5bp
VIX	15.14	+7.3%	국고채 10년	3.952	+0bp
러셀 2000	1,810.10	-0.9%	미국 국채 2년	5.176	+8.6bp
필라. 반도체	3,398.81	-1.74%	미국 국채 10년	4.407	+4.8bp
다우 운송	15,165.17	+0.01%	미국 국채 30년	4.445	+2.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75.98	+0.78%	WTI	89.66	-0.91%
MSCI 전세계 지수	675.24	-0.49%	브렌트유	93.17	-1.24%
MSCI DM 지수	2,936.36	-0.5%	금	1967.1	+0.69%
MSCI EM 지수	970.87	-0.37%	은	23.58	+1.66%
MSCI 한국 ETF	62.14	-0.7%	구리	374.65	+0.8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1.3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 8 월 CPI, PPI 결과가 시차를 두고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장중 발표될 중국 실물지표 3. 애플 아이폰 15 사전예약 시작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월 FOMC 결론 및 향후 증시 방향성)

FOMC 이후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락하긴 했으나, 향후 시장은 주가 측면에서 중립 수준으로 소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일단 얼마나 하향할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사였던 '24 년 점도표를 오히려 상향했다는 점이 증시에서는 “고금리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식의 쇼크로 작용하긴 했음. 다만, '24년 점도표 상 위원들간 편차가 확대된 상태라는 점, 연준의 점도표는 상향 편의 경향이 있으며 후행적으로 바뀌는 가변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고금리 장기화(high for longer)”의 문제는 증시에서도 채권 투자 대비 주식 투자의 매력도를 감소시키는 등 밸류에이션 문제와 엮여 있는 부분. 하지만 a) 경제 전망 상 코어 PCE 를 하향조정했다는 점, b) 점도표 상 5.75% 위로 찍힌 점들이 소멸했다는 점, c) CME Fed watch 상으로도 연내 금리 동결 지속이 컨센스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

이에 더해 10 월부터 시작되는 실적시즌의 경우,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경기(=소프트랜딩 이하로 착륙하기 어려운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3 분기 실적시즌을 통해 이익 전망 추가 개선을 시장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 국내 증시는 차주 목요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남은 5 거래일 동안 장기 휴장 불확실성으로 수급 변동성은 있겠으나, 연휴 이후 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추세상 저점을 완만히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9월 FOMC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3 년 점도표는 기존 중간값 5.6%로 유지했지만, '24 년 점도표는 기존 중간값 4.6%에서 5.1%로 상향하면서,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 '23 년 전망치 상 성장률 상향(6 월 1.0% → 9 월 2.1%), 실업률 하향(4.1% → 3.8%), PCE(3.2% → 3.3%) 등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했다는 점도 부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추세 이상의 성장은 추가 긴축을 타당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시장에 재차 주입시켜줬기 때문.

그럼에도 향후 증시가 중립 수준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우선 올해 점도표를 유지한 상황 속에서 5.75% 위로 점을 찍은 위원들이 기존 3 명에서 0 명으로 줄어듦. 또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연내 추가 긴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CME Fed Watch 상 11 월 동결 71.6%, 12 월 동결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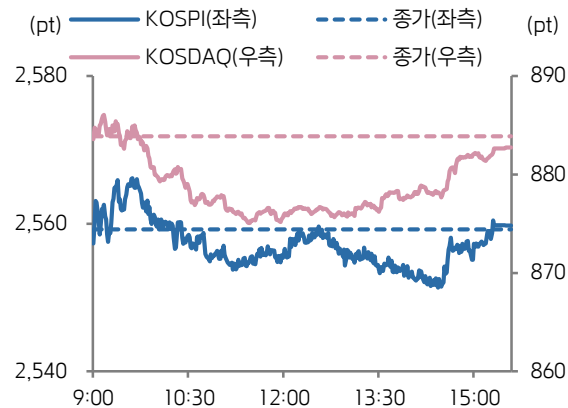
또 파월 의장이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헤드라인과 달리 '23 년 코어 PCE 는 기존 3.9%에서 3.7%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러한 점은 에너지 가격 부담이 상존함에도 양호한 경기 전망 및 인플레이 하락 등의 조합이 경기를 소프트랜딩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인플레이 통제의 목표를 달성해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파월의장의 전반적인 기자회견을 살펴봐도, 내용 상으로는 매파적이긴 했으나 지난 잭슨홀 미팅 당시 발언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신중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결국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 후행적으로 정책 결정에 나설 것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으로 경기 판단과 점도표를 상향한 것도 시장이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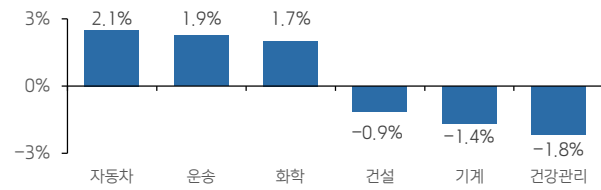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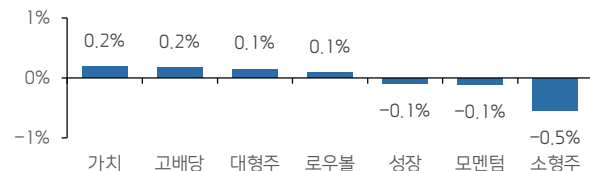
(국내 증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9 월 FOMC 경계심리에도, 기관 순매수 속 자동차, 2 차전지, 해운 등 주요 업종 강세 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02%, 코스닥 -0.13%).

금일에는 9 월 FOMC 에서의 '24 년 점도표 상향 등 일부 매파적인 결과로 인한 미 10 년물 금리 4.4%대 진입, 아이폰 15 사전 수요 부진 우려 등으로 인한 애플(-2.0%) 약세 등 미국발 부담 요인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상기 FOMC 결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 시 장중에는 미국 선물시장의 반등 여부와 한국 9 월 수출(~20 일)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